

## 건강문제에 관한 의견조사 —우리나라 학부모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명 호 · 백 종 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 경 자

= Abstract =

### Health Concern Survey of Parents of School Children

Myung Ho Kim,\* M.D., Jong Hyun Baik,\* B.S.,  
and Kyung Ja Lee,\*\* M.P.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Obtaining an available information on health concerns of parents of school-age children and furthermore developing the sound policy for the public on health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during Nov.-Dec. 1985 in the four selected areas; Seoul, large, middle and small city, and farming and fishery villages for 3,337 parents of schoolchildren in Korea.

In this study, par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taining 34 items related to health concerns(e.g. drinking alcohol, air pollution, cancer, etc. see Table 4 and Fig. 2). For each health items, respondents were asked to indicate a choice between three levels of concern; "Very high concern," "Moderate concern," "Little concern", and "No opinion". An analysis of responses indicated that most of the top ten health concerns identified by parents as cancer,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medical malpractice, water pollution, traffic accidents, air pollution, suicide of parents and homicide of offspring, heart disease, venereal diseases, and high blood pressure in that order. Those health problems about which respondents were least concerned we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 individual, such as drinking alcohol, smoking, tooth decay, gum disease, underweight, overweight. Of greater concern were more such as water pollution,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ir pollution, accidents, medical malpractice.

For cancer, heart disease, high blood pressure, various accidents, environmental pollution, parents showed high concern, however, for health issues which contributed as causative influences such as lung cancer from smoking and liver cirrhosis and traffic accidents from drinking alcohol showed less concern.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sidential areas, educational level and sex distribution and health concern showed little difference, however, for these issues parents identified as relatively high concern. Most parents showed more concern in sex-related of family-related health issues such as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of parents and homicide of offspring.

##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지니고 그 생명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각나라의 고유 문화가 건강의 개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생활환경, 인접국의 문화 등 제반요소들이 건강에 관련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준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는 전염병 예방과 위생관리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동원되었고 보건교육에 있어서도 전염병에 대한 교육이 우선순위였다.

건강의 개념이 19세기 중엽부터 신체적 개념에서 심신의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대두되면서 생활개념으로 인식된 것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건강의 개념이 시대와 생활환경에 따라 변천하므로 건강을 가르쳐 건강생활의 실천을 바라는 보건교육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용도 달라졌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 다변화하는 시기에 세계적으로 인간은 건강을 어떻게 느끼며 건강에 있어서의 주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정책을 결정하고 보건교육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 영역에서 국민들의 건강문제에 관한 중요성 인식도에 관한 연구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제시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선진화된 일본과 미국 역시같은 상황이므로 일본,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로 뜻을 같이하여 세나라에서 각각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초로 1982년과 1983년 사이에 일본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본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84년과 1985년 사이에는 미국의 California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대

\* Eguchi, A.: Professor, Institute of Health and Sports Science and Director, Office of Community and Internal Relations at the University of Tsukuba, Tsukuba Science City, Japan.

Fodor, J.T.: Professor, Health Science; Director, Instructional Media Center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California.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Dr. Eguchi가 미국에서는 Dr. Fodor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자들이 중심되어 공동 연구하고 있다.

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현재는 조사대상자를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까지 확대하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일본은 세계 제 2차대전 전에 주된 건강문제로서는 전염병으로, 보건교육 역시 전파예방과 위생관리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후 1950년대 서구화,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건강문제도 사회,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그들은 개인적인 건강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서구세계와 같은 경향이며, 한국에서의 본 연구조사 결과도 같은 양상을 띠고 있어 이에 따른 여러 견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이 세나라가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그 나라의 건강증진 발전에 있어 최근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요구 등을 반영시키는 사회 및 보건자료 특히 보건교육자료로 이용함은 물론 각 나라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세계적인 경향을 파악하여 국제적으로 보건교육의 자료원을 제공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문제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학교와 국민의 보건교육사업의 내용과, 집단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건교육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인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문제의 중요도를 파악한다.
-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3) 조사결과를 급후 국민에 대한 사회보건 교육개발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전반적인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건강문제를 조사 분석하여 사회보건교육의 자료로 삼고 더 나아가서 보건정책수립에도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표본추출은 전인구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전국을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는 7개 대도시중 대전을, 중·소도시는 전체 중·소도시 53개 중에서 원

Table 1. Respondents of the survey by the school

Schools	No. distributed	No. of respondents	(%)
Senior high	849	849	100.0
Junior high(Middle)	945	918	97.1
Elementary	1,890	1,570	83.1
Total	3,675	3,337	90.8

주를, 나머지 농어촌 중에서 광양을 각각 무작위 추출 선정하였다(Fig. 1).

구분된 4개 지역에서 각각 2~3개교의 학교를 선정 국민학교 8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9개교를 선정하여 총 26개교의 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국민학교에서는 210명의 표본을, 중·고등학교에서는 각각 105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모두 3,675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에 걸쳐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별로 배부한 설문지 회수율은 90.8%이었다(Table 1).

또한 조사지역에 따른 조사대상자수는 각각 서울에서 1,010명(30.3%), 대도시에서 771명(23.1%), 중·소도시에서 788명(23.6%), 농어촌에서 768명(23.0%)으로써 각 지역에 고르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 2. 측정도구 및 변수선정

측정도구로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건강문제 중요성 인식도를 측정한 34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정, 공장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공장, 자동차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공장, 자동차 등의 소음」 「담배」 「술」 「약품남용」 「화재, 외상, 골절 등과 같은 가정의 사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과체중」 「저체중」 「영양부족」 「정신병」 「출생시 장애」 「방부제, 식품첨가물, 합성착색물」 「미혼여성의 임신」 「중·고생의 임신중절」 「성병」 「자살」 「부모의 자살과 자녀살인」 「암」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신장병」 「폐결핵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 「잇몸질환」 「충치」 「청력부족」 「시력부족」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 「병의원 부족 등과 같은 부적절한 보건봉사」 「지나친 의원과 약의 선전



Fig. 1. Map of survey areas.

(광고)」 「무당굿과 같은 건강에 관한 미신적인 관습」 이상의 34가지 각 항목을 「거의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잘모르겠다」의 4가지 Likert Scale로 나누어 해당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사용한 34가지 건강문제와 관련된 변수 선정은 사망 및 이환 통계표에서 일부 선정하고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보건분야 인사와 특히 보건교육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췌하였다.\*\*

## 3. 자료수집절차

조사기간은 1985년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이며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작성후 예비조사를 이화여대 의대생들이 전남도서지역에서 실시한 후 수정을 가했다.

설문지 발송은 각 학교교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학교 선정 및 배부는 교장 임의로 하게 하였으며 조사요령을 별도 첨부하여 각 학교교장이 학부모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회수는 각 학교별로 우편 회송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가 미흡한 학교는 재발송하여 재접조를 요청하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재발송 및 여러 차례 전화독려를 하여 회수율은 고등학교가 100%로 최고를 나타냈고 중학교 97%, 국민학교 83%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회수율이 90%가 넘는다.

\*\*주로 일본의 Dr. Eguchi가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Table 2. School distribution of the survey by the area

(Unit: cases)

	Seoul	Large city	Middle & small city	Rural area	Total(%)
Senior high school	197	207	225	220	849(25.5)
Junior high school	282	258	198	180	918(27.5)
Elementary	531	306	365	368	1,570(47.0)
Total(%)	1,010(30.3)	771(23.1)	788(23.6)	768(23.0)	3,337(100.0)

#### 4. 자료처리 및 분석

분석은 frequency 와 crosstabulation 을 주로 이용하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수입과 지역분포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건강문제 34가지 변수에 대해 frequency 를 검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34가지 항목과 비교분석하였다. 즉 나이와 건강문제에 대한 각 항목과의 실수, 백분율,  $\chi^2$ -test 등의 crosstabulation, 지역간에 있어서의 비교, 또한 성별, 교육수준, 수입, 거주지와의 실수, 백분율,  $\chi^2$ -test 등 crosstabu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한국, 일본, 미국과의 공동연구이므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건강문제 의견 조사표'의 제목으로 설문지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조사항목 34가지 변수들이 반드시 한국의 건강문제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건강문제에 대한 각 항목들에 있어서의 나라간의 견해, 혹은 전반적인 흐름 등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견해를 서로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라 세나라의 경향을 파악, 각 나라에서의 건강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의의를 지닌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주거지가 낙도벽지인 대상자수가 6명(전체조사대상자의 백분율로 볼때 0.2%)이었고 연령구분에서는 20세 이하인 조사대상자(설문지조사내용 중에서 학생과의 관계사항의 부모의 기태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가 15명(전체 조사대상자의 0.5%)이 나타나 극히 적은 수의 표본이므로 대표성을 고려하여 결과분석에서 제외시켰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앞의 조사대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정학교를 지역별로 볼때, 서울에서 30.3%, 대도시 23.1%, 중·소도시 23.6%, 농어촌 23.0%의 비율로 표본이 추출되어 전국에서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분류별 분포에서는 남자고등학교 359명, 여자고등학교 490명, 남자중학교 413명, 여자중학교 505명, 국민학교 1,570명으로 고등학교가 25.5%, 중학교 27.5%, 국민학교가 47.0%를 차지하였다.

응답한 부모에서 학생과의 관계를 볼 때 부가 59.1% 모가 38.2%로 약 6:4의 비를 구성하였고 이를 남녀의 비로 보면 남자가 60.4%, 여자가 39.6%로 약 6:4의 비가 되었다.

연령분포에서는 대부분이 30세 이상에서 50세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36세에서 40세가 약 24%, 41세에서 45세가 약 28%, 46세에서 50세가 약 22%로 36세에서 50세까지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4.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졸이상은 23.7%가 되며 이중 대졸이상이 16.4%를 차지하였다.

수입에 있어서는 월수입으로 환산하여서 월수입 30만원에서 60만원선이 41.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월수입 10만원에서 30만원이 23.4%이며 월수입 100만원이상은 5.2%로 가장 적었다.

직업분포에서는 상업이 23.7%로 가장 많은 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주거지 분포에서는 대도시가 42.4%, 중도시 23.6%, 소도시 15.5%, 농어촌 18.3%, 낙도벽지 0.2%로 선정학교의 지역별 분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o. of cases		Percent	No. of cases		Percent
<b>Area</b>			<b>Commerce</b>		
Seoul	1,010	30.3		773	23.7
Large city	771	23.1	<b>Others</b>		
Middle & small city	788	23.6		334	10.3
Rural area	768	23.0	<b>Total</b>		
Total	3,337	100.0		3,337	100.0
<b>Classification of school</b>			<b>Age</b>		
High school	359	10.8	Under 20 years	15	0.5
Girl's high school	490	14.7	21~30years	78	2.4
Junior high school	413	12.4	31~40years	1,140	34.3
Girl's junior high school	505	15.1	41~50years	1,661	50.0
Elementary school	1,570	47.0	Over 51 years	426	12.8
Total	3,337	100.0	Total	3,337	100.0
<b>Relationship</b>			<b>Income</b>		
Father	1,973	59.1	Under 1,200,000 Won	415	13.0
Mother	1,275	38.2	1,200,000~3,600,000 Won	748	23.4
Others	89	2.7	3,600,000~7,200,000 Won	1,318	41.1
Total	3,337	100.0	7,200,000~12,000,000 Won	553	17.3
<b>Sex</b>			Over 12,000,000 Won		
Male	2,014	60.4		166	5.2
Female	1,320	39.6	<b>Total</b>		
Total	3,337	100.0		3,337	100.0
<b>Occupation</b>			<b>Education level</b>		
Agriculture	414	12.7	Elementary	438	13.2
Fishery	5	0.2	Junior high school	620	18.7
Forestry	9	0.3	High school	1,471	44.4
Mining	45	1.4	Junior college	242	7.3
Employee of company	491	15.1	University	544	16.4
Service industry	197	6.0	Total	3,337	100.0
Free lance	344	10.6	<b>Residence</b>		
Public official	434	13.3	Large city	1,390	42.4
Teacher	212	6.5	Middle city	775	23.6
			Small city	510	15.5
			Rural area	600	18.3
			Remote village or islands	6	0.2
			Total	3,337	100.0

## 2.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도 종합 평가

한국의 학부모들이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에 있어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해 보면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대체로 일본을 비롯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서구화 된 선진국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한국의 학부모들이 각 항목별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것을 순위별로 보면 1위가 암으로 78.3%를 차지하고 가장 낮은 34위가 무당굿과 같은 건강에 관한 미신적인 관습으로 18.2%를 차지하며 그 밖의 다른 항목들은 약 80%에서 20%의 범위에 속하고 있었다.

암 다음으로 2위에는 중·고생의 임신중절(73%), 3위는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2%), 4위에 수질오염(70%)의 순으로 이상은 모두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69~60% 사이의 분포는 5위 교통사고(68%), 6위 공장, 자동차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67.6%), 7위 부모자살과 자녀살인(65.3%), 8위 심장병(65.2%), 9위 성병(61.3%) 10위는 고혈압(60.5%), 11위 미혼여성의 임신(60.3%), 12위 뇌졸중(60.2%)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사망원인으로 알려진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성인병에 조사대상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80년대 이후부터 전세계적으로 성인사망에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암—심장병—뇌졸중의 순으로 심장병이 뇌졸중을 앞지르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심장병이 뇌졸중의 뒤를 이어 세번째로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 구미 각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심장병의 사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관심도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질오염과 공기오염 등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요 원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주 중요하다」에 응답한 것 중에서 수질오염이 83%로 순위 1위를 나타내고 있어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가 71.8%로 전체 3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보험 확대와 의료혜택의 증가로 인해 의료 이용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의료계에 많은 관심과 양질의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반응으로 보이며 보건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고생의 임신중절이 72.7%로 암 다음으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미혼여성의 임신도 60.3%를 나타내고 있어 이는 청소년의 성교육, 즉 자녀에 대한 성교육이 학부모들에게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9~50%에 분포하는 것은 약물남용, 정신병, 방부제·식품첨가물·합성착색료, 화재·의상·골절 등과 같은 가정의 사고, 심장병, 자살, 시력부조, 출생시장애, 지나친 의원과 약의 선전, 폐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이 해당된다.

50~49%에는 영양부족, 청력부조, 흡연, 지나친 의원과 약의 선전 등이 속하며 39~30%에는 소음, 충치, 술, 자연재해 등이며 29~20%에는 잇몸질환, 과체중,

저체중이며, 34위인 무당굿과 같은 건강에 관한 미신적인 관습이 19~10% 사이에 속한다(Table 4, Fig. 2).

이상을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4위인 수질오염이 일본에서는 1위(83%)이며, 암(82%)과 교통사고(82%)가 2위, 중·고생 임신중절(78%) 4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7%)가 5위 등, 순위에 있어 1위에서 5위까지에는 순서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응답률이 일본이 약간씩 높은 편이다. 그러나 6위에서 10위 사이에는 주목할 만한 사항들이 있다.

즉 공기오염은 두 나라 똑같이 6위이지만 응답률은 한국이 68%, 일본이 76%로 일본이 높은 퍼센트를 나타낸다. 한편 일본에서 7위가 무당굿과 같은 건강에 관한 미신적인 관습으로 응답률 7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은 34위로 18.2%이다. 이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유교사상 또는 신도사상적인 종교색이 짙고 일본 고유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는 배타적이고도 고집스러운 민족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보다는 기독교 사상이 더 많이 존재하는 영향도 있겠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더 이상 문제로 삼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건강문제에 미신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정신병을 8위(72%)로 두고 있었고 9위는 동반자살(66%), 10위는 성병(65%)이었다. 일본에서의 이상 10위까지의 순위는 California에 있는 일본인들에게서 조사한 결과와 매우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Table 5는 일본과 한국의 건강문제 34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한 백분율을 비교한 표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은 건강문제의 주된 원인을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더 파급적이고 사회적인 건강문제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이다. 즉 수질오염, 사고,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 공기오염 등 파급적이고 사회적인 건강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알콜중독, 담배, 충치, 잇몸질환, 저체중, 과체중, 시력부조, 청력부조 등 개인적이고도 작은 범위의 건강문제에는 관심을 덜 쏟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서구화된 나라에서의 건강문제 관심도 역시 서구세계와 비슷한 양상을 따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이는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

Table 4. Level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Unit: %)

Item	Very high concern	Moderate concern	Little or no concern	No opinion	Total
Cancer	78.3	12.4	4.9	4.4	100.0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72.7	10.6	6.5	10.2	100.0
Medical malpractice	71.8	15.2	5.1	7.8	100.0
Water pollution	70.2	20.1	5.3	4.4	100.0
Traffic accidents	67.8	19.4	7.6	5.2	100.0
Air pollution	67.6	24.2	4.8	3.4	100.0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5.3	9.1	9.8	15.8	100.0
Heart disease	65.2	24.3	5.7	4.8	100.0
Venereal disease	61.3	19.1	7.8	11.9	100.0
High blood pressure	60.5	28.2	6.4	4.9	100.0
Illegitimate pregnancy	60.3	19.3	9.0	11.3	99.9
Stroke	60.2	26.1	7.0	6.7	100.0
Misuse of medicine	57.4	23.9	9.1	9.6	100.0
Mental & emotional problems	57.1	18.3	11.5	13.2	100.0
Food additives	55.5	27.1	7.7	9.7	100.0
Home accidents	55.0	28.5	10.0	6.5	100.0
Kidney disease	53.9	30.9	7.9	7.3	100.0
Suicide	53.8	14.0	12.8	19.4	100.0
Vision disorders	53.7	34.3	7.7	4.3	100.0
Birth defects	52.2	21.9	12.0	13.9	100.0
Poor delivery of health services	51.7	30.8	7.6	9.8	100.0
Respiratory(lung) disease	51.6	34.3	9.1	5.0	100.0
Nutritional deficiency	49.8	28.1	15.2	6.9	100.0
Hearing disorder	45.9	35.7	11.9	6.4	100.0
Cigarette smoking	42.4	38.9	12.4	6.3	100.0
Sensational health advertising	40.0	33.3	17.8	8.9	100.0
Noise pollution	38.8	46.6	9.2	5.4	100.0
Tooth decay	35.7	47.0	13.8	3.5	100.0
Drinking alcohol	35.5	44.9	13.2	6.4	100.0
Natural disasters	34.5	34.8	19.3	11.4	100.0
Gum disease	25.8	51.9	17.1	5.3	100.0
Underweight	23.3	44.4	22.4	9.9	100.0
Overweight	22.2	45.8	21.9	10.1	100.0
Phantom killers or superstitions about health	18.2	21.1	42.0	18.7	100.0

및 인접국의 문화 등이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공통된 현상은 교통사고, 암, 뇌졸중 등은 중요 건강문제로, 순위에서 모두 10위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교통사고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술과 담, 패걸렉, 심장병의 원인이 되

는 담배에는 중요성을 덜 두고 있어 알콜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그 유해성이 더욱 강조하고 있는 요즘,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문제의 원인적 요소가 되는 다른 건강문제의 인식도가 아직도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Comparison of health concerns of Korean and Japanese

Item	Very high concern(order)		Very high concern(%)	
	Korea	Japan	Korea	Japan
Cancer	1	2	78.3	82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2	4	72.7	78
Medical malpractice	3	5	71.8	77
Water pollution	4	1	70.2	83
Traffic accidents	5	2	67.8	82
Air pollution	6	6	67.6	76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7	9	65.3	66
Heart disease	8	11	65.2	64
Venereal disease	9	10	61.3	65
High blood pressure	10	18	60.5	54
Illegitimate pregnancy	11	21	60.3	49
Stroke	12	13	60.2	60
Misuse of medicine	13	15	57.4	57
Mental & emotional problems	14	8	57.1	72
Food additives	15	15	55.5	57
Home accidents	16	23	55.0	48
Kidney disease	17	17	53.9	56
Suicide	18	14	53.8	58
Vision disorders	19	20	53.7	52
Birth defects	20	19	52.2	54
Poor delivery of health services	21	23	51.7	48
Respiratory(lung) disease	22	25	51.6	47
Nutritional deficiency	23	21	49.8	49
Hearing disorder	24	26	45.9	40
Cigarette smoking	25	28	2.4	34
Sensational health advertising	26	29	40.0	33
Noise pollution	27	26	38.8	40
Tooth decay	28	29	35.7	33
Drinking alcohol	29	33	35.5	15
Natural disasters	30	12	34.5	62
Gum disease	31	31	25.8	33
Underweight	32	33	23.3	15
Overweight	33	32	22.2	25
Phantom killers or superstitions about health	34	7	18.2	75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순위와 일반적 특성에서 sub-sampling으로 나눈 표본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세분화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단 본 연구 결과 전체적인 세부사항은 제외시키고 「매우 중요하다」에 해당하는 백분율만을 비교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그에 따른

각 Table과 Figure는 전체 순위 12위에 해당하는 항목\*\*\* 위주로 표시한 것이며 Table은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를 모두 나타냈으며 Figure는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만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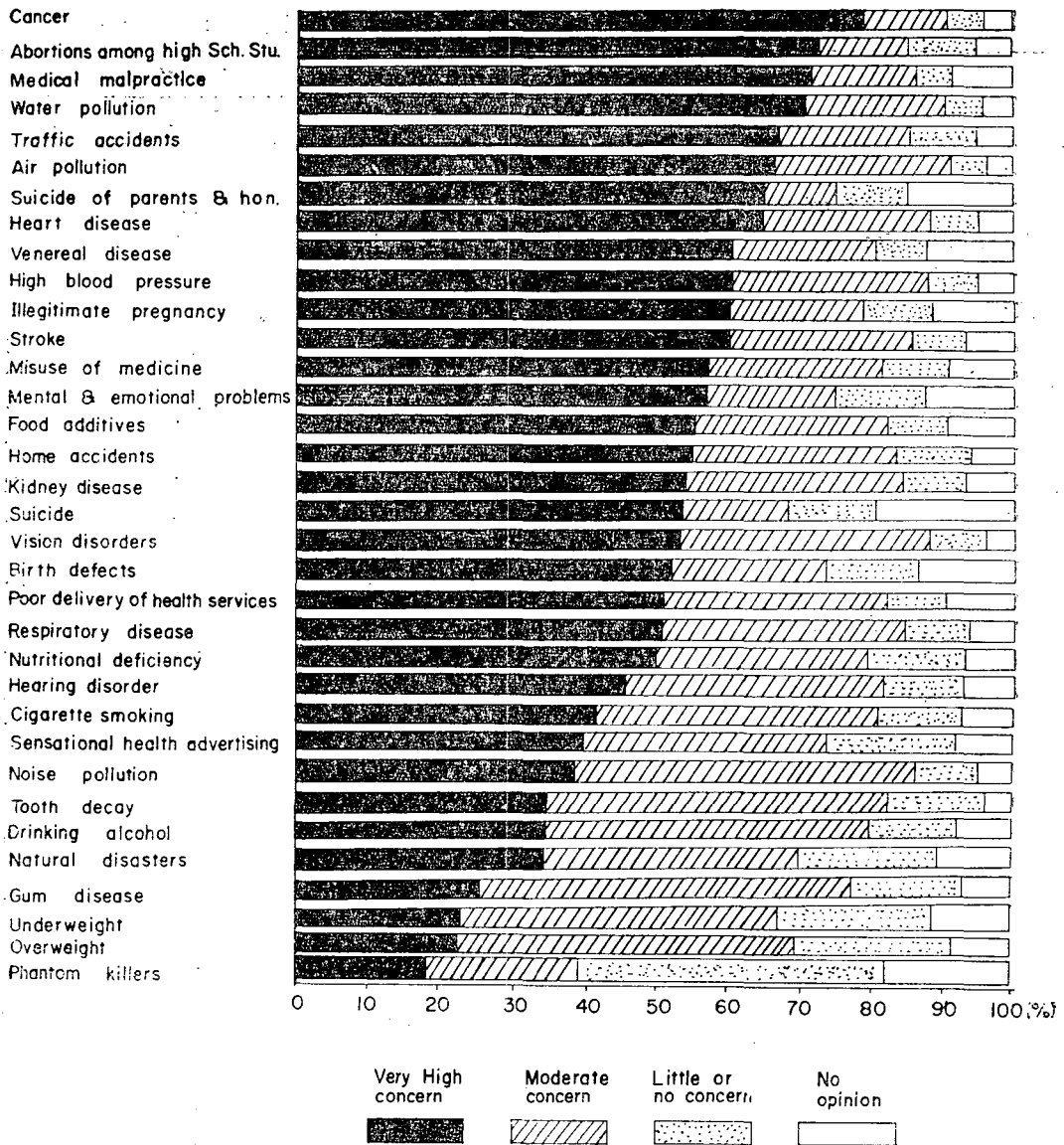


Fig. 2. Outlook of level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 3. 선정학교의 지역별 건강문제 인식도 비교

한국의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건강문제 중요성에 있어 지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을 비롯 대도시에

\*\*\* 12가지 항목만을 선정한 것은 전체 순위 12위와 각 sub-sampling 간의 12위 사이의 항목이 동일하며 단지 그들간의 순위변동만 있고 이는 또한 평균백분율 60% 이상에 해당하므로 저자 편의상 선정하였다.

\*\*\*\* Figure에서 변수들간에 continuous 하지 않으므로 점선 도표로 나타내는 것은 무의미하나 sub-sampling 간의 차이를 한 눈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의의를 지닌다.

서는 수질오염, 공기오염의 중요도를 농촌에서보다 높게 두는 현상으로 이것은 일본의 전체 순위와 더 비슷한 경향을 띤다.

즉 서울과 농촌을 비교해 볼때 서울에서는 1위가 암(79.8%), 2위가 수질오염(77.0%), 3위 공기오염(76.4%), 4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6.2%), 5위가 중·고생의 임신중절(76.1%)의 순이지만 농촌은 1위 암(76.6%), 2위 부모자살과 자녀살인(70.6%), 3위 교통사고(67.8%), 4위 중·고생 임신중절(66.8%), 5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66%)의 순이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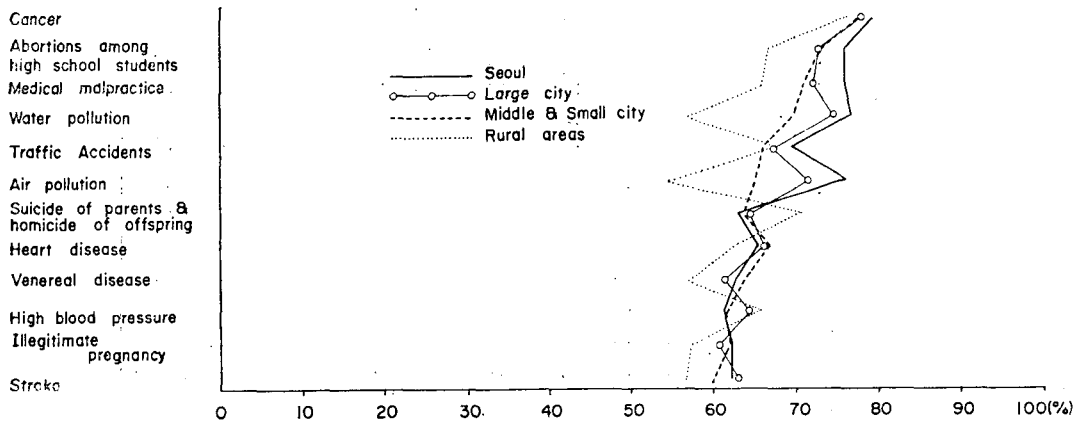


Fig. 3. Outlook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survey areas.

대체로 도시일수록 「매우 중요하다」의 백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문제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촌에서의 특이한 현상은 부모자살과 자녀살인에 심각성을 표명하므로 이에 대한 제반 연구가 요구된다.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항목에서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약품남용, 방부제·식품첨가물·합성착색물, 소음 등으로 대도시일수록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Table 6, Fig. 3).

#### 4. 남·녀학교분류별 건강문제 인식도

한국에서는 대체로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등 딸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아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보다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딸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관심은 중·고생의 임신중절과 미혼여성의 임신 등에 높게 나타나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냐에 따라 학부모들의 건강관심도가 다른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자학교에서는 1위가 암(81.1%), 2위 중·고생 임신중절(78.5%), 3위가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3.8%), 4위 수질오염(71.4%), 5위 공기오염(69.4%)로 백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학교에서는 1위 암(71.4%), 2위 수질오염(67.5%), 3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65.8%), 4위 중·고생의 임신중절(65.1%) 5위 공기오염(64.4%)의 순을 이루었다.

그 외 남자학교와 여자학교간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화재·외상 골절 등과 같은 가정의 사고, 영양부족, 정신병, 출생시 장애, 방부제·식품첨가물·합성착색물,

신장병, 호흡기질환, 청력부조, 시력부조 등으로 여자학교가 다소 높은 율을 나타내었다(Table 7, Fig. 4).

#### 5. 성별 건강문제 인식도

한국에서는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다. 약 10년 전 1977년에 당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동포들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 일부 중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남녀별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질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높게 답한다고 나타나 있는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여자는 1위에 암(81.2%), 2위에 중·고생의 임신중절(75.9%), 3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3.1%), 4위 수질오염(71.8%), 5위 교통사고(71.3%)의 순이며 남자는 1위 암(76.4%), 2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1.0%), 3위 중·고생의 임신중절(70.6%), 4위 수질오염(69.2%), 5위 공기오염(67.0%)의 순으로 대체로 여자의 비율이 높다.

그 외, 담배가 유일하게 남·녀간에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39.5%, 여자가 47.0%로 역시 여자가 중요도를 높게 두는 경향이 있고 이는 흡연효과가의 절대다수가 남자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은 폐암 등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금연을 권유하고 질병교육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Table 8, Fig. 5).

Table 6. Level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survey areas

Item	Seoul(%)				Large city(%)				Middle & small city(%)				Rural areas(%)				χ <sup>2</sup> -test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Cancer	79.8	11.5	3.9	4.8	100.0	78.3	12.5	5.2	3.9	100.0	78.2	13.0	4.5	4.3	100.0		76.6	12.9	6.2	4.3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76.1	10.3	5.1	8.5	100.0	73.3	10.7	5.9	10.1	100.0	73.6	9.6	5.6	11.2	100.0	66.8	11.9	9.7	11.6	100.0	29.36*
Medical malpractice	76.2	12.7	4.0	7.1	100.0	72.4	17.0	4.5	6.2	100.0	71.3	14.7	5.0	9.1	100.0	66.0	17.4	7.5	9.2	100.0	32.63*
Water pollution	77.0	15.8	3.6	3.6	100.0	74.8	17.6	3.4	4.2	100.0	69.9	19.0	5.8	5.2	100.0	56.8	29.4	8.9	4.9	100.0	106.85*
Traffic accidents	69.5	17.5	8.2	4.9	100.0	67.5	19.0	8.1	5.3	100.0	65.9	23.3	5.4	5.4	100.0	67.8	18.2	8.8	5.1	100.0	16.94*
Air pollution	76.4	18.5	3.0	2.2	100.0	71.7	21.6	3.3	3.4	100.0	65.1	26.4	4.8	3.7	100.0	54.4	32.1	18.9	4.6	100.0	115.88*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3.2	10.5	9.6	16.7	100.0	64.3	9.6	9.9	16.3	100.0	63.6	8.9	9.8	17.6	100.0	70.6	7.0	9.9	12.4	100.0	18.3*
Heart disease	65.3	24.9	4.4	5.5	100.0	66.1	24.7	6.0	3.1	100.0	66.6	21.7	5.6	6.1	100.0	62.5	25.9	7.5	4.2	100.0	20.42*
Veneral disease	62.8	19.3	6.3	11.6	100.0	61.4	18.7	7.4	12.5	100.0	63.8	17.1	6.8	12.3	100.0	56.6	21.2	11.0	11.2	100.0	22.48*
High blood pressure	60.9	29.0	5.8	4.4	100.0	64.1	26.8	5.5	3.6	100.0	61.5	27.5	5.7	5.2	100.0	55.3	29.4	8.9	6.4	100.0	23.02*
Illegitimate pregnancy	61.9	18.9	8.1	11.2	100.0	60.5	19.1	8.7	11.6	100.0	61.6	18.2	8.8	11.4	100.0	56.9	21.3	10.8	11.0	100.0	8.43*
Stroke	61.9	26.0	6.4	5.7	100.0	62.4	25.1	5.9	6.7	100.0	59.8	26.7	6.1	7.4	100.0	56.3	26.4	9.9	7.3	100.0	18.19*

1: Very high concern 2: Moderate concern 3: Little or no concern 4: No opinion

\*p<0.05

Table 7. Level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schools health concern of respondents by schools

Item	Boy's school(%)				Total	Girl's school(%)				Total	χ <sup>2</sup> -test
	1	2	3	4		1	2	3	4		
Cancer	71.4	15.8	7.4	5.4	100	81.1	11.1	3.9	3.8	100	39.26*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65.1	12.0	8.4	14.5	100	78.5	8.8	5.2	7.5	100	46.81*
Medical malpractice	65.8	18.4	18.4	6.7	100	73.8	14.3	5.0	7.0	100	22.80*
Water pollution	67.5	21.5	6.9	4.1	100	71.4	19.5	5.4	3.7	100	17.30
Traffic accidents	62.7	20.9	11.6	4.8	100	67.4	21.1	6.8	4.7	100	39.95*
Air pollution	64.4	24.3	7.1	4.2	100	69.4	23.1	5.0	2.5	100	30.59*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4.0	9.5	11.7		00	66.5	9.7	8.5	15.3	100	14.37
Heart disease	58.9	27.8	7.9	5.3	100	66.5	24.2	4.7	4.5	100	27.95*
Venereal disease	52.9	22.2	11.6	13.2	100	64.4	18.4	6.1	11.1	100	40.59*
Highblood pressure	51.2	34.0	8.3	6.4	100	61.9	27.4	5.9	5.65	100	48.50*
Illegitimate pregnancy	55.0	19.6	12.	13.0	100	67.6	17.2	5.9	9.4	100	51.64*
Stroke	51.4	29.8	10.5	8.2	100	59.2	26.3	6.4	6.8	100	57.72*

1: Very High concern 2: Moderate concern 3: Little or no concern 4: No opinion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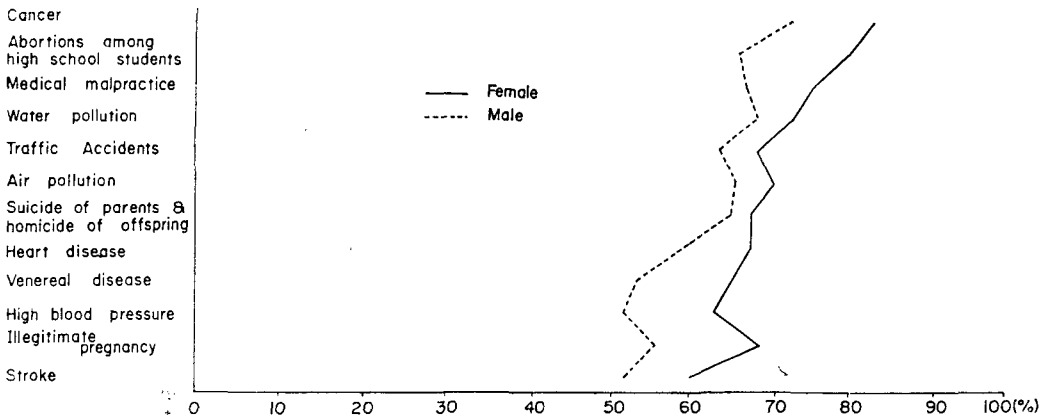


Fig. 4. Outlook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schools.

### 6. 연령별 건강문제 인식도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관심도가 다소 높고 다음으로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순위에 있어서

도 전체 평균 순위와 별 차이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백분율 분포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31세에서 40세사이의 조사대상자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Table 9, Fig. 6).

Table 8. Level of health concerns of parents by sex

Item	Male(%)					Female(%)					$\chi^2$ -test
	1	2	3	4	Total	1	2	3	4	Total	
Cancer	76.4	13.8	5.3	4.5	100	81.2	10.4	4.3	4.2	100	11.90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70.6	11.8	7.3	10.4	100	75.9	8.8	5.2	10.1	100	15.39*
Medical malpractice	71.0	16.1	5.3	7.5	100	73.1	13.8	4.8	8.3	100	9.67
Water pollution	69.2	20.9	5.8	4.1	100	71.8	18.8	4.6	4.9	100	9.60
Traffic accidents	65.6	20.7	8.7	5.0	100	71.3	17.3	6.0	5.4	100	20.40*
Air pollution	67.0	25.1	4.9	2.9	100	68.6	22.8	4.6	4.0	100	24.66*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6.3	9.0	10.3	14.4	100	63.7	9.3	8.9	18.1	100	18.6
Heart disease	64.0	25.2	6.0	4.7	100	66.8	22.9	5.4	4.9	100	6.37
Venereal disease	60.0	21.4	8.3	10.2	100	63.2	15.4	6.9	14.5	100	34.33*
High blood pressure	59.1	29.1	6.4	5.3	100	62.5	26.9	6.4	4.2	100	5.27
Illegitimate pregnancy	57.4	21.1	10.4	11.0	100	64.8	16.7	6.9	11.6	100	36.05*
Stroke	59.0	27.1	7.4	6.5	100	62.1	24.5	6.4	7.0	100	7.70

1: Very high concern 2: Moderate concern 3: Little or no concern 4: No opinion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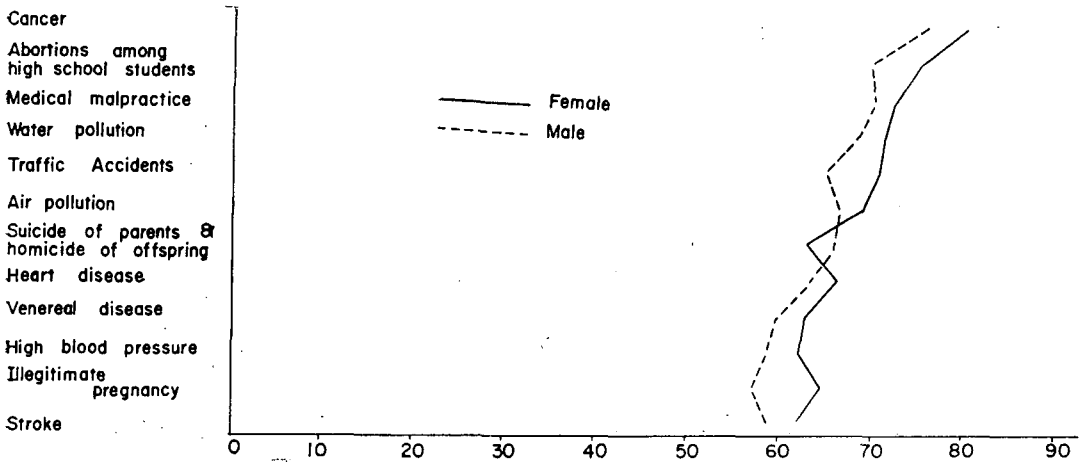


Fig. 5. Outlook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sex.

7.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문제 인식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을 졸업한 학력수준에서 1

위가 암(80.2%), 2위 수질오염(80.1%), 3위 공기오염(77.6%), 4위 중·고생의 임신중절(75.9), 5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5.4%)의 순으로 일본의 전체 평균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 반면 중학교이하 졸업의 학력수준에서는 1위 암(76.2%); 2위 중·고생

Table 9. Level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age distribution

Item	31~40years					41~50years					$\chi^2$ -test
	1	2	3	4	Total	1	2	3	4	Total	
Cancer	81.9	10.6	3.8	3.7	100.0	78.0	13.0	4.5	4.5	100.0	58.44*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74.9	10.4	5.5	9.2	100.0	72.2	10.5	6.7	10.6	100.0	31.99
Medical malpractice	73.7	15.1	3.4	7.8	100.0	71.8	8.9	5.4	7.8	100.0	44.73*
Water pollution	73.1	18.7	3.9	4.9	100.0	70.0	21.1	4.7	4.2	100.0	60.99*
Traffic accidents	71.2	16.7	6.1	5.8	100.0	67.4	20.3	7.5	4.7	100.0	48.69*
Air pollution	69.1	23.5	3.7	3.8	100.0	67.3	25.4	4.3	3.0	100.0	56.56*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5.9	9.0	9.1	18.0	100.0	65.8	9.0	9.9	15.3	100.0	23.64
Heart disease	67.0	15.1	4.7	4.9	100.0	66.2	23.9	5.7	4.1	100.0	50.44*
Venereal disease	62.4	18.7	6.6	12.3	100.0	61.2	19.4	7.7	11.6	100.0	33.99
High blood pressure	63.4	26.3	5.4	4.5	100.0	59.6	30.0	6.2	4.2	100.0	
Illegitimate pregnancy	59.3	20.8	8.4	11.5	100.0	60.7	18.5	9.1	11.6	100.0	37.87
Stroke	65.8	23.4	4.9	5.9	100.0	58.5	27.2	7.6	6.6	100.0	57.89*

1: Very high concern 2: Moderate concern 3: Little or no concern 4: No opinion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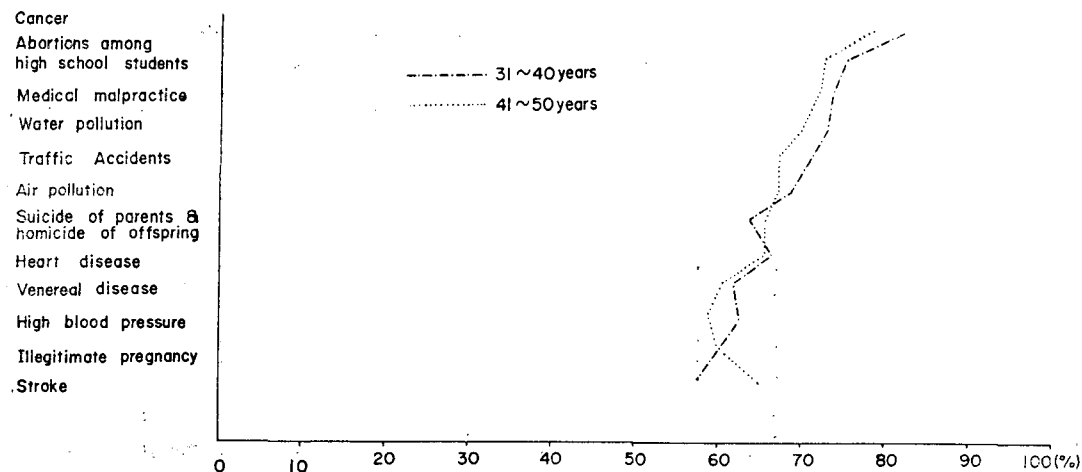


Fig. 6. Outlook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age distribution.

의 임신중절(68.8%), 3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67.2%), 4위 부모자살과 자녀살인(66.0%), 5위 교통사고(6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약품남용과 방부제·식품첨가물·합성착색물 등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성을 높게 두고 있다(Table 10, Fig. 7).

#### 8. 수입과 직업에 따른 건강문제 인식도

수입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다. 설문지에서 수입분류를 일본의 화폐단위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원'으로 환산하여 월 10만원이하,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월 60만

Table 10. Level of health concerns of parents by educational level

Item	Lower than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Higher than junior college				$\chi^2$ -test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Cancer	76.2	12.2	6.2	4.4	100.0	78.8	11.8	4.6	4.7	100.0	80.2		13.9	3.3	2.6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68.8	9.9	8.8	12.5	100.0	73.9	10.2	6.2	9.7	100.0	75.9	12.2	3.8	8.0	100.0	33.73*
Medical malpractice	67.2	17.0	7.1	8.8	100.0	73.1	14.0	4.5	8.4	100.0	75.4	15.5	3.5	5.6	100.0	29.28*
Water pollution	61.3	23.6	9.4	5.8	100.0	71.4	20.6	3.7	4.3	100.0	80.1	14.5	2.7	2.7	100.0	120.01*
Traffic accidents	64.8	19.4	9.9	5.9	100.0	69.5	18.1	7.0	5.3	100.0	69.2	11.3	5.5	4.0	100.0	26.46*
Air pollution	60.0	30.0	8.1	4.8	100.0	67.8	25.4	3.9	2.9	100.0	77.6	18.1	2.1	2.2	100.0	111.81*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6.0	8.3	10.4	15.3	100.0	66.1	1	8.9	17.0	100.0	63.1	12.0	10.5	14.4	100.0	24.17*
Heart disease	64.4	22.2	7.2	6.0	100.0	65.7	23.7	5.7	4.8	100.0	65.3	28.2	3.6	2.9	100.0	30.05*
Veneral disease	57.5	19.0	9.5	14.0	100.0	62.6	18.1	7.9	11.5	100.0	64.4	20.7	5.2	9.7	100.0	26.96*
High blood pressure	57.8	27.3	8.2	6.7	100.0	61.4	27.9	6.5	4.2	100.0	62.5	30.2	3.6	3.8	100.0	37.61*
Illegitimate pregnancy	59.7	17.2	10.7	12.4	100.0	60.9	19.1	8.6	11.4	100.0	60.7	22.3	7.5	9.4	100.0	30.94*
Stroke	56.0	25.1	9.7	9.3	100.0	62.6	24.9	6.4	6.1	100.0	61.5	29.6	4.5	4.5	100.0	47.97*

\*p<0.05

1: Very high concern      2: Moderate concern      3: Little or no concern      4: No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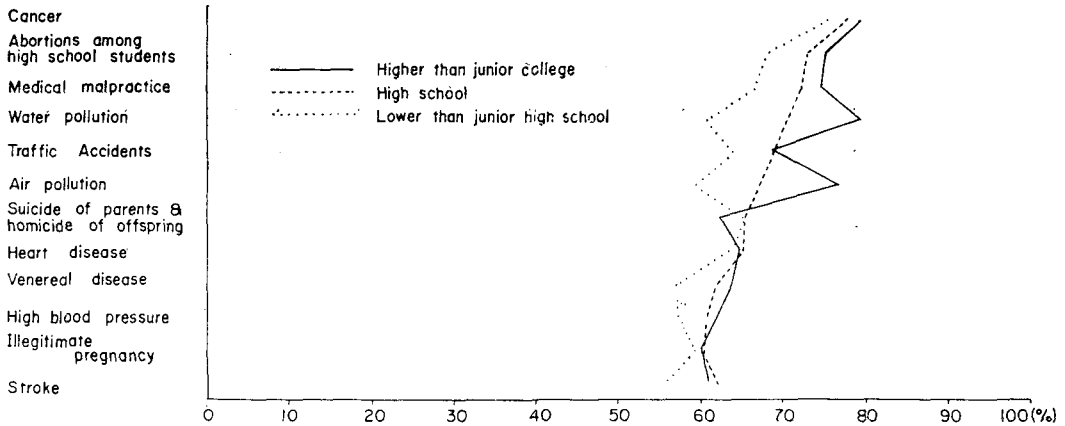


Fig. 7. Outlook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educational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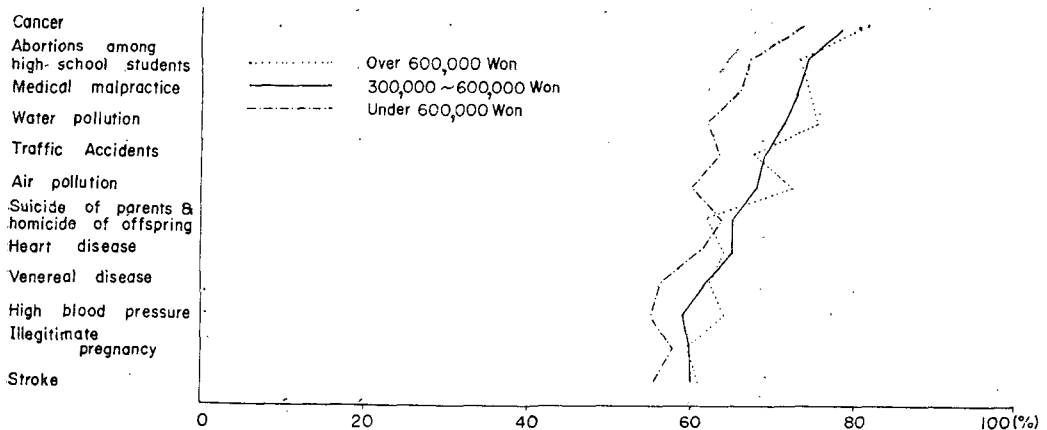


Fig. 8. Outlook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income(per month).

원에서 100만원, 월 100만원 이상의 5구분을 하였다.

대체로 수입이 높을 수록 중요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월 30만원 미만은 대체로 55~75%의 범위, 월 30만에서 60만원에서는 주로 60~80%의 범위, 그리고 월 60만원 이상에서는 60~82%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월 30만원에서 월 60만원의 소득수준층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1위는 암(79.9%), 2위 중·고생의 임신중절(75.7%), 3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4.3%), 4위 수질오염(72.8%), 5위, 교통사고(70.4%)의 순이었다.

월 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층은 1위에 암(81.8%),

2위 수질오염(76.9%), 3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5.3%), 4위 중·고생 임신중절(74.7%), 5위 공기오염(73.8%)의 순이었다(Table 11, Fig. 8).

직업에 의한 비교는 직업구분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상업, 회사원, 서비스업, 자유업, 공무원, 교직원, 기타 등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직업분포가 다양하고 표본의 수가 매우 적은 직업이 많아 대표성이 결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9. 주거지별 건강문제 인식도

주거지별로 보면 선정학교의 도시규모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도시일수록 중요도가 높게 나



Table 11. Level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income (Unit: Won per month)

Item	<300,000Won				300,000~600,000Won				>600,000Won				$\chi^2$ -test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Cancer	74.7	12.8	6.7	5.8	100.0	79.9	12.8	3.3	4.0	100.0	81.8	11.2	4.0	3.1	100.0	41.00*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68.6	10.0	8.2	13.3	100.0	75.7	10.2	5.3	8.9	100.0	74.7	11.6	5.4	8.4	100.0	40.92*
Medical malpractice	67.4	16.3	7.0	9.4	100.0	74.3	15.4	3.8	6.5	100.0	75.3	14.4	3.2	7.0	100.0	38.14*
Water pollution	63.5	22.8	7.8	5.9	100.0	72.8	19.7	3.8	3.7	100.0	76.9	17.1	2.6	3.0	100.0	68.94*
Traffic accidents	64.9	18.2	10.0	7.0	100.0	70.4	19.1	6.5	4.0	100.0	69.0	21.2	5.0	4.7	100.0	37.65*
Air pollution	61.8	26.8	6.3	5.1	100.0	69.6	23.8	4.3	2.4	100.0	73.8	21.5	2.6	2.1	100.0	60.67*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5.3	7.5	10.1	17.1	100.0	66.5	10.2	9.2	14.1	100.0	63.1	9.7	10.0	17.3	100.0	16.43*
Heart disease	62.7	22.3	8.4	6.7	100.0	66.7	25.1	3.9	4.3	100.0	65.0	27.6	4.3	3.1	100.0	50.67*
Veneral disease	57.8	18.3	9.5	14.3	100.0	63.3	19.6	6.7	10.4	100.0	63.6	19.5	6.4	10.5	100.0	27.30*
High blood pressure	56.6	27.8	8.9	6.7	100.0	60.6	29.7	5.5	4.3	100.0	65.3	28.5	3.2	3.1	100.0	46.99*
Illegitimate pregnancy	59.2	16.8	10.2	13.7	100.0	61.4	20.4	8.5	9.7	100.0	60.7	21.5	7.9	9.8	100.0	28.88*
Stroke	57.0	25.6	9.4	8.1	100.0	61.7	27.2	5.4	5.7	100.0	62.1	26.1	5.6	6.3	100.0	28.58*

\*p<0.05

1: Very high concern      2: Moderate concern      3: Little or no concern      4: No opinion

Table 12. Level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residence

Item	Seoul(%)				Large city(%)				Middle & small city(%)				Rural area(%)				$\chi^2$ test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Total	1		2	3	4	
	Cancer	79.8	12.2	3.6	4.4	100.0	77.9	12.9	5.1	4.2	100.0	77.2	12.8	6.1	3.9	100.0		76.5	12.2	6.0	5.2
Abortions among high school students	77.2	9.9	4.6	8.4	100.0	72.9	10.2	6.0	11.0	100.0	68.6	12.0	7.1	12.4	100.0	65.6	11.5	10.5	12.4	100.0	47.30*
Medical malpractice	77.4	13.6	3.3	5.6	100.0	70.6	15.8	5.3	8.3	100.0	65.5	18.6	5.3	10.5	100.0	66.1	15.4	8.5	10.0	100.0	60.22*
Water pollution	77.0	15.5	3.2	4.3	100.0	72.3	18.6	4.5	4.5	100.0	65.6	24.6	5.9	3.9	100.0	56.5	28.3	9.8	5.3	100.0	107.82*
Traffic accidents	69.9	17.7	7.8	4.6	100.0	66.0	20.8	6.8	6.4	100.0	67.2	20.9	6.9	4.9	100.0	67.2	18.8	8.7	5.2	100.0	12.68
Air pollution	76.6	18.3	2.7	2.5	100.0	66.5	25.7	4.1	3.6	100.0	61.8	29.5	5.1	3.5	100.0	54.3	30.6	10.4	4.8	100.0	132.25*
Suicide of parents & homicide of offspring	64.6	10.7	8.7	16.0	100.0	63.6	9.1	10.4	16.8	100.0	63.0	7.7	8.6	15.7	100.0	67.5	7.7	10.6	14.2	100.0	12.48
Heart disease	65.8	25.4	4.6	4.3	100.0	66.5	22.5	5.7	5.4	100.0	65.0	24.0	6.5	4.5	100.0	62.0	24.8	7.7	5.5	100.0	13.82
Veneral disease	63.5	19.0	6.4	11.1	100.0	61.9	17.5	7.4	13.2	100.0	58.2	19.9	9.7	12.2	100.0	57.7	20.5	9.4	12.4	100.0	16.56
High blood pressure	62.8	28.2	4.6	4.3	100.0	60.3	28.7	6.7	4.3	100.0	59.0	20.0	6.9	4.1	100.0	56.5	26.3	9.7	7.5	100.0	33.30*
Illegitimate pregnancy	61.5	20.0	7.5	11.0	100.0	62.0	17.2	9.2	11.6	100.0	58.0	18.3	9.7	14.0	100.0	57.5	21.4	11.4	9.7	100.0	19.75
Stroke	62.9	25.5	5.6	6.1	100.0	60.0	26.4	7.3	6.4	100.0	57.0	27.2	8.3	7.5	100.0	56.4	26.6	8.9	8.0	100.0	16.65

\*p<0.05

1: Very high concern    2: Moderate concern    3: Little or no concern    4: No opi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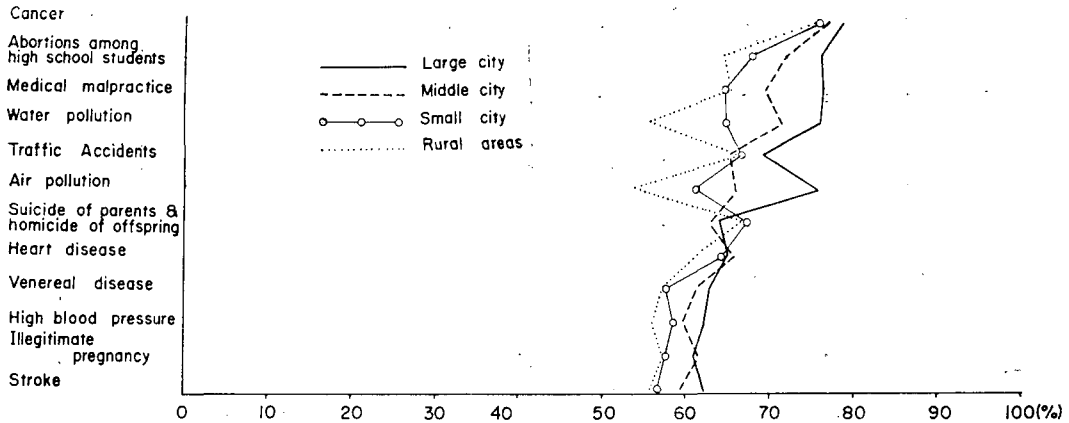


Fig. 9. Comparison of health concerns of respondents by residence.

타나고 있어 대도시는 1위 암(19.8%), 2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77.4%), 3위 중·고생 임신중절(77.2%), 4위 수질오염(77.0%), 5위 공기오염(76.6%)의 순이며 농촌에서는 1위 암(76.5%), 2위 부모자살과 자녀살인(67.5%), 3위 교통사고(67.2%), 4위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66.1%), 5위 중·고생 임신중절(65.6%)의 순이었다.

그 외에 도시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방부제·식품첨가물·합성착색물로써 대도시는 60.9%를, 농어촌은 48.1%를 나타내고 있어 주위환경과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 건강문제 중요도의 우선 순위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Table 12, Fig. 9).

## V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문제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학교와 국민의 보건교육사업의 내용과, 집단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건교육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후 국민에 대한 사회 및 보건교육의 개발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198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조사대상자수는 3,337명이었고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34가지 건강문제 항목을 선정하여 그의 중요도를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원래 한국, 일본, 미국의 3개국 공동연구로 연구 방법이 공동으로 구상되어 연구결과도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에서의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도는 사회, 경제적으로 서구화된 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암, 심장병 등 최근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성인병에 관한 건강문제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정신병, 각종 사고 등이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조사항목 34가지 건강문제 중에서 전체 평균 순위 10위 안에 있는 항목을 보면 한국에서는 암, 중·고생 임신중절,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 수질오염, 교통사고, 공기오염, 부모자살과 자녀살인, 심장병, 성병, 고혈압의 순위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수질오염, 암, 교통사고, 중·고생의 임신중절,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 공기오염, 무당굿과 같은 건강에 관한 미신적인 관습, 정신병, 부모자살과 자녀살인, 성병의 순위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개인적이고 소규모적인 건강문제보다는 사회적이고 파급적인 건강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두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술, 담배, 충치, 잇몸질환, 저체중, 과체중 등 개인적이고 덜 파급적인 건강문제보다는 수질오염, 중·고생의 임신중절, 공기오염, 사고,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 등 보다 파급적이고 사회적인 건강문제에 중요성을 높게 두고 있었다.

셋째, 복합원인이 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대체로 낮았다. 즉 암, 심장병, 고혈압, 각종사고, 환경

오염 등에는 인식도가 높으나 이런 질병을 유발하고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적 요소가 되는 건강문제에는 아직도 중요성 인식이 미흡하였다. 예로써 폐암, 심장병, 뇌졸중 등은 주된 건강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런 질병 원인의 하나인 담배는 주된 건강문제로써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알콜소비는 간경화는 물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데 술 역시 주된 건강문제로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였다.

그러므로 현대 질병과 사고 등의 복합원인이 되는 건강문제의 중요성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보건교육이 요구된다.

비례, 지역 및 학력수준, 남녀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건강의식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특히, 자녀교육에 관련된 중·고생의 임신중절, 미혼여성의 임신, 부모의 자살과 자녀살인 등에 중요성을 높게 두고 있었고, 여기서 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된 건강문제는 사회의 건강문제인 동시에 가정의 건강문제를 나타낸 것이었다. 그러므로 가정은 물론 학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보건교육에 있어 청소년의 성교육은 우선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 각 나라간의 건강문제 중요성을 파악하여 세계 보건교육의 내용과 사회보건교육의 정책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는 한국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건강에 대한 지식, 흥미, 실천 및 태도에 관한 정보인 동시에 보건교육내용 선정의 기준이 되며 세계 보건교육 자료와 보건정책자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대 건강문제의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여러 건강문제의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건강교육과정의 적절한 내용 선택과 사회보건 정책의 기초자료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

구는 이러한 과정 즉, 건강문제에 관여되는 기초자료로써 그 내용을, 선정하여 얻은 결론을 보건교육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로 의의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보건교육 자료개발을 바탕으로 보건교육의 실천이 필요함을 새삼 강조한다.

## 참 고 문 헌

- 1) Berry E, Kessler JB, Foder JT, Wato M. "Intercultural Communication for Health Personn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983; 7:377-392
- 2) Eguchi A, Takaishi M. *Education and Health, Gendai School Health Series 1, Kyosei, 1983*
- 3) Fodor J, Dalis G. *Health Instruction: Theory and Application, 3rd ed. Lea and Febiger, 1981*
- 4) Guide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in Japan, Tokyo.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81*
- 5) Hashimoto M. *Recent Trends and Problems of Community Health Activities. Tokyo Iga-kushoin, 1975*
- 6) Kim M. *Health Education, Soomoonsa, 1985*
- 7) Miyasaka T. "Transition of Health Education", *Jap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62; 9:191
- 8) Opening Doors. *Contemporary Japan. "What makes the Japanese "Japanese" New York: The Asia Society Inc, 1979*
- 9) Trends on Hygiene of Japanese People, Tokyo.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Association, 1984*

## 한국의 건강문제 의견조사 설문지

교장선생님께

1985.

어린 학생들 교육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교장선생님을 위시하여 온 선생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은 “서기 2000년까지는 만인을 건강하게”라는 범세계적인 운동에 발맞추어 우리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대열에 적극 참여하고자 “건강문제에 관한 의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주하신 중에도 다음 요령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국민학교의 경우 1~6학년까지,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1~3학년까지 각 학년에서 30명씩(여유 있게 35명이면 더욱 좋습니다)을 택하여 조사용지와 학부모님께 보내는 서신을 아동편에 보내고 1주 이내에 회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회수된 조사용지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보셔서 혹시 누락이 있으면 전화연락이나 재차 각 가정에 보내서 기록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3. 각학년 별로 수집되면 다음 주소로 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회송용 봉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감 : 1985. 11. 30.
4. 본 조사는 비밀이 유지되며 연구결과는 각 학교에 알려드립니다.

1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김 명 호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세계가 만인 즉 세계 모든 사람이 기원 2000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희망과 노력으로 한창일때 우리 한민족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여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조사에 협조해 주심으로 우리 민족의 자질 향상과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을 양괄하셔서 별지 조사표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내용은 개인의 비밀은 유지될 것이며 우리나라 보건사업 추진에 참고자료로만 쓰여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온 가정에 평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빕니다.

198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김 명 호 드림

# 한국의 건강문제 의견조사표

## (Health Concern Survey, Korea).

(학생란)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학부모님 중 답변해 주시는 분에 관해서 기록해 주십시오. 이 조사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 |   |   |  |
|---|---|--|
| 1. 학생과의 관계  | 1) 아버지<br>3) 기 타 _____  | 2) 어머니   |
| 2. 성 별  | 1) 남 자  | 2) 이 자   |
| 3. 연 령  | 1) 20세이하<br>3) 26~30세<br>5) 36~40세<br>7) 46~50세<br>9) 56세 이상    | 2) 21~25세<br>4) 31~35세<br>6) 41~45세<br>8) 51~55세 |
| 4. 직업(가구주)  | 1) 농 업<br>3) 임 업<br>5) 회사원<br>7) 자유업<br>9) 교직원<br>11) 기 타 _____ | 2) 어 업<br>4) 광공업<br>6) 서비스업<br>8) 공무원<br>10) 상 업 |
| 5. 연간 가구 전수입  | 1) 120만원 이하<br>3) 360~720만원<br>5) 1200만원 이상                     | 2) 120~360만원<br>4) 720~120만원                     |
| 6. 최종 출신교   | 1) 국민학교<br>3) 고등학교<br>5) 대학이상                                   | 2) 중 학 교<br>4) 초급대학                              |
| 7. 주 거 지  | 1) 대 도시<br>3) 소 도시<br>5) 낙도벽지                                   | 2) 중 도시<br>4) 농 어 촌                              |
| 8. 다음에 열거한 34가지 사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강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학부모께서는 각 항목을 읽으시면서 보기의 설명과 동일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   |  |
| 한국의 건강문제로서  | 거의 중요하지 않다.....   | 1  |
|   | 약간 중요하다 .....   | 2  |
|   | 매우 중요하다 .....   | 3  |
|   | 잘 모르겠다 .....  | 4  |

〈보기 1〉 소화불량	1	2	3	④
〈보기 2〉 감 기	1	②	3	4
1. 가정, 공장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1	2	3	4
2. 공장, 자동차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1	2	3	4
3. 공장, 자동차 등의 소음	1	2	3	4
4. 담 배	1	2	3	4
5. 술	1	2	3	4
6. 약품남용(적절치 못한 약품사용)	1	2	3	4
7. 화재, 외상, 골절 등과 같은 가정(집)의 사고	1	2	3	4
8. 교 통 사 고	1	2	3	4
9. 자연재해(태풍, 지진)	1	2	3	4
10. 피체중(너무 뚱뚱한 것)	1	2	3	4
11. 저체중(너무 마른 것)	1	2	3	4
12. 영 양 부 족	1	2	3	4
13. 정 신 병	1	2	3	4
14. 출생시 장애(태어날때 생긴 장애)	1	2	3	4
15. 방부제, 식품첨가물, 합성착색물	1	2	3	4
16. 미혼여성의 임신	1	2	3	4
17. 중·고교생의 임신중절(유사수술)	1	2	3	4
18. 성 병	1	2	3	4
19. 자 살	1	2	3	4
20. 부모의 자살과 자녀살인(동반자살)	1	2	3	4
21. 암	1	2	3	4
22. 심 장 병	1	2	3	4
23. 고 혈 압	1	2	3	4
24. 뇌 출 증(중풍)	1	2	3	4
25. 신 장 병(콩팥에 생기는 병)	1	2	3	4
26. 폐결핵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	1	2	3	4
27. 잇몸질환(뽕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	1	2	3	4
28. 충 치(이가 썩는 것)	1	2	3	4
29. 청력부조(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	1	2	3	4
30. 시력부조(눈이 나쁜 것)	1	2	3	4
31. 의료인의 잘못된 의료행위	1	2	3	4
32. 병의원부족 등과 같은 부적절한 보건봉사	1	2	3	4
33. 지나친 의원과 약의 선전(광고)	1	2	3	4
34. 무당굿과 같은 건강에 관한 미신적인 관습	1	2	3	4